

인사말

오늘 이렇게 서울시와 함께 미래지향의 유익한 협약을 맺는 것을 뜻 깊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등회 연등축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에 항상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 시대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3년전 일본의 원전사고와 갈수록 악화되는 전력 수급은 에너지 절약의 절실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수년전부터 친환경적 생태 유지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 왔으며,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절감의 문제를 넘어 생명공동체를 이해하는 종교적 소명이자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구성원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실천으로 부처님오신날 등, 사찰마다 사용하는 연등과 무형문화재인 연등축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전구로 점차 바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절반이 훨씬 넘는 연등행렬이 절전 전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을 밝히는 가로 연등에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통등에 맞는 절전 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사찰의 에너지를 진단하여 전통건물에 맞는 에너지 소비양식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비와 절약을 실천하고,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불자들이 자신의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생활운동으로 확산되어 대중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서울의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대표님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깊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종단은 협약식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